



Weekly Keyword

"로봇 업황 반등은 아직"

테라다인 로봇 부문의 4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, 신제품 출시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며, 아직 로봇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구조적 수요 반등은 아직. 바닥 구간 통과 중

유진투자증권

로봇/기계/운송 양승윤
02) 368-6139_syyang0901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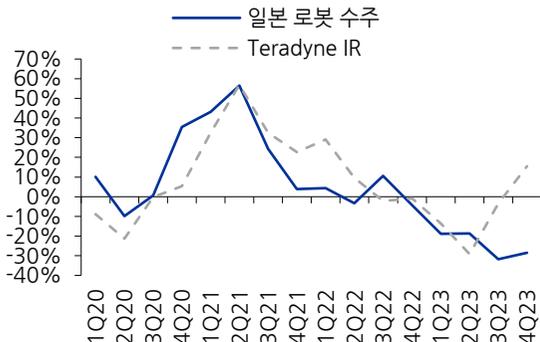


로봇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27)

[로봇 업황 반등은 아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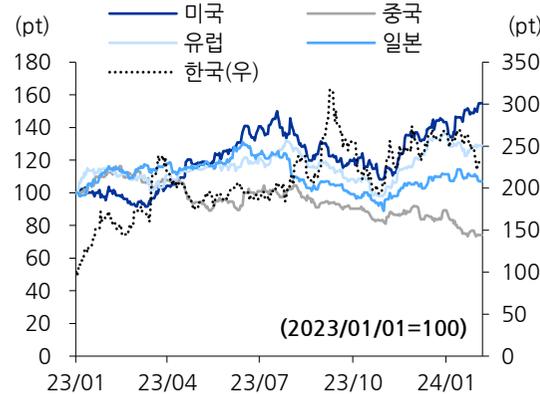
■ 테라다인의 4Q23 실적에서 로봇 부문의 매출액은 1.29억 달러 (+15yoy%, +50%qoq)를 기록. 4분기에 로봇 출하가 집중되는 계절성과 지난해 신규 출시되어 본격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UR20 및 UR30의 강한 수요가 호실적 배경. 물류 로봇 자회사 MiR의 매출도 전분기대비 67% 증가. 4분기 호실적의 반등으로 2024년 1분기 실적은 과거 계절적 하락폭보다 더 감소할 수 있으나, 2024년 연간 로봇 사업 부문의 실적은 전년비 10~20%가량 성장할 전망. 한편, 1월 26일 발표된 일본 로봇공업회 통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로봇 기업의 10~12월 수주액이 1,579억엔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9% 감소. 테라다인의 호실적과 상반된 모습으로, 아직 구조적인 로봇 업황 개선 시그널은 없는 상황. 다만, 수주액이 전분기대비로는 2% 감소에 그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. 하반기 이후 본격 개선 전망

Key Chart: 일본 로봇수주와 Teradyne 로봇실적 yoy 변동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글로벌 로보틱스 Chart(국가별 시총 변화)



글로벌 로봇 산업 밸류에이션 테이블

구분 (단위: %, 배)	수익률			P/S	P/E
	1M	3M	12M	24	24
산업용	-5.1	1.5	2.9	3.0	35.0
서비스	-11.3	1.8	34.5	6.7	106.6
(물류)	-8.2	8.0	72.8	8.9	198.0
(BtoC)	-13.0	-7.8	-13.3	4.1	52.9
부품	-9.0	2.2	-1.1	18.3	92.2
한국	-7.3	3.2	24.8	-	-
일본	1.4	9.0	0.7	2.6	32.2
미국	-10.2	6.1	50.5	9.7	153.3
유럽	-5.4	17.8	-11.4	4.4	25.6
중국	-19.4	-23.4	-35.0	11.7	65.7
글로벌 전체	-7.4	2.2	12.0	6.8	64.5

자료: Quantwise

로봇 주요 뉴스(01/29~02/04)

[산업용 로봇]

■ 제우스, 세미콘 코리아에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공개

[서비스 로봇]

■ 로보티즈/뉴빌리티,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수여
■ 위로보틱스, BtoB 웨어러블 로봇 2종 공식 출시

[기타(정책/부품/SW)]

■ 과기부, 첨단로봇 등 5개분야 전략 로드맵 수립 의결
■ 엔젤로보틱스, 상장 본격화. 공모가 밴드 1.1~1.5만원
■ 빅웨이브로보틱스, 내년도 IPO 본격 추진 예정
■ KNR시스템, 국내 유일 유압로봇부품 공급사로 주목

[Global]

■ MS와 오픈 AI, 피규어 AI에 1억 달러 투자 논의
■ 아마존, EU 규제에 2조원대 아이로봇 인수 포기
■ 메타 AI, VLM(비전언어모델) 활용 로봇 AI 개발 속도
■ 유니버설로봇, 작년말 출시 UR30 한국 공개
■ 뉴욕경찰, 4개월만에 로보캡 K5 시범 운영 중단 발표
■ 테라다인 로봇 부문, 23년 연 매출 3.75억 달러 기록
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족보행로봇 원격 조종 성공
■ 소프트뱅크, 베어로보틱스 서빙로봇 판매 개시
■ 중국, 7개 부처 합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추진
■ 중국, 서비스 로봇 판매 2022년 기준 2억 달러 기록
■ 중국 감속기 업체 리치, 기업공개 신청서 제출
■ 칭화대 계열 벤처 QianJue가 로봇 범용 LLM 개발 중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